

# 하이데거와 만난 날

安 炳 茂

## (1) 하이데거!

유학생 중에는 사계(斯界)의 거물들을 방문하는 것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타고난 성격이 남달라서인지, 또는 게으름 탓인지는 몰라도 직접 사사(師事)해야 할 사람 외에는 찾아가 본 일이 없다. 나는 볼트만에 많은 영향을 받은 관계로 자연 하이데거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는 고사하고 볼트만도 찾아가는 일이 없다. 그런데 나는 두 차례에 걸쳐 그것도 一주일간씩 그를 출판 대하여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풍모를 느끼고 그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나는 지금 그가 내게 서명해준 《사유란 무엇인가》라는 그의 책을 펼쳐 봤다. 거기에는 〈베델에서의 학회를 기억하며, 1960년 11월 19일, 마르틴 하이데거〉라고 써여져 있다. 그러나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이 12년 전이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볼트만학회(學會)에서였다. 이 모임은 볼트만의 신학(神學)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로 언제나 10월 하순에 열리는데 월요일에 모여서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된다. 약 70명의 제한된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서 발제(發題)와 열편 토론이 계속된다. 재독시(在獨時)에 나는 줄곧 이 모임에 참여할 행운을 가졌는데 거기서 얻은 자극과 충동은 학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이데거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덧붙여 얻은 큰 수확이었다.

이미 통지서에 이번에는 하이데거가 참여한다고 했기에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내 관심의 받은 차지하였다. 도착하자 배정된 방에 짐을 꾸리고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갔다. 지정된 자리에 앉자 나는 그가 왔는지를 확인했다. 옆의 사람이 가리키는 쪽을 봤으나 사람이 가리워서

볼 수 없었다. 식사 후에는 자유롭게 앉아서 늦도록 간담하는 것이 통례다. 나는 드디어 민첩하게 움직여 그의 곁에 바싹 앉을 수 있었다. 하이데거! 수 10년 전 예과시절(豫科時節)부터 들어 왔던 이미 고전화된 그와 마주 앉았다는 것이 얼른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 앞에 앉아 파이프를 물고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한마디씩 둘러싸인 사람들의 묻는 말에 응수하는 그의 풍모는 너무나 평범했다. 그는 서구인으로는 작은 키였으나 머리는 유난히 크다고 생각됐다. 그러나 그렇게 생긴 머리 모양의 서구인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그런데 소위 학자라면 창백한 얼굴과 한풀죽은 듯이 생기었다는 나의 통념에 대해서 그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얼굴색은 햇볕 아래 젖은 농부의 얼굴처럼 구리색이었으며 그의 자세는 서체에 박혔던 사람의 그것이 아니라 방금 평이를 놓고 차 한 잔 마시기 위해 들어온 일꾼의 그것이었다. 두툼한 손, 두툼한 목덜미, 파이프를 비스듬히 문 두툼한 입술, 복직한 코끝, 그리고 허술한 옷차림 등은 영락없이 흔히 보는 독일 농부나 노동자의 인상이다. 한마디로 그의 풍모는 소위 학자의 문약성(文弱性)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의 눈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 (2) 文章처럼 또렷한 말씨

그의 참 모습이 드러난 것은 토론하는 마당에서였다. 그때의 테에마는 철학과도 관계가 있었음인지 카알 뢰비트, 가다마 등 여러 저명한 철학자들도 참여했다. 하이데거는 볼트만과 함께 맨 앞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두 거성(巨星)이 임석했다는 자체가 벌써 그 학회의 분위기나 무게를 결정하는 듯이 회중(會衆)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했다. 나는 그들을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앉았는데 하이데거는 발제(發題) 강연과 토론이 진행될 때 한 손에는 파이프를 잡고 한손으로 작은 메모지에 무엇인가 간간히 기록하고 있었으며 아무 말없이 경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론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면 사회자는 테에마에 따라서 볼트만 아니면 하이데거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자의 단독재량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회중의 시선은 거의 약속이나 한 듯이 자못적으로 그들에게 모이게 되고, 사회자는 그것을 눈치채고 그들에게 돌출구를 부탁하는 것이다. 하이데거는 부탁을 받으면 메모한 것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



고 또렷또렷한 말씨로 차근차근히, 그러나 간결하게 그의 의견을 말한다. 그의 말에서 언제나 느낀 것은 그의 발언이 그대로 그의 문장과 같이 정확한 논리와 분명한 개념의 배열이었다는 점과 자기가 말할 수 있는 한계는 여러가지라는 선을 뚜렷이 그었다는 점이다. 하여간 그의 견해는 그의 칼대로 하나의 견해이며 어떤 강압적인 억양이 아니었는데도 언제나 열렬 감론을박을 조용히 가라앉히는 결론이 되고 말았다. 그것은 결코 그의 권위에서 오는 위압 때문이 아니었고 그의 틈없는 논리성이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소위 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철학자인 그의 신학적 지식이었다. 그는 최근의 신학적 동향을 세밀히 알고 있었다. 그는 신학에 언급하고는 「이 점은 동료 볼트만도 동의할 것으로 압니다만……」하고 볼트만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러면 볼트만은 미소로 머리를 끄덕여서 수긍을 표시하면 다음 말을 진행했다.

그때의 토론이나 그의 발언을 거의 잊어버린 오늘에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 (3) 드디어 나는 손을 들고

오프라는 젊은 신학자가 (조직신학(組織神學)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 강연을 했다. 그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책을 썼는데 하이데거 자신으로부터 자기 철학을 가장 잘 이해했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강연 후 입장이 다른 신학자들과의 열렬 논쟁이 오후 내내 계속되었다. 두 의견은 끝끝내 대립되어 좁혀범 접근할 수 없게 된 채 다음 순서 시간이 박두하게 되었다. 그때 사회는 하이데거에게 무슨 코멘트 할 게 없느냐고 물었다. 묵묵히 듣고만 있던 그는 조용히 일어서더니 「도대체 조직적(Systematisch)이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한 마디 질문을 던지고 앉아 버렸다. 이에 회중은 물을 끼얹은 것 처럼 조용하며니 얼마후 여기저기서 와그르르 실소(失笑)를 터뜨렸다. 하이데거는 이 한마디로 한다하는 학자들의 치부(恥部)를 건드린 것이다. 저들은 (조직적)이라는 개념을 자명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하루종일 토론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자명적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것부터 정립(定立)하지 않으면 아무리 논쟁해야 결국 동문서답 밖에 될게 없다는 사실을 폭로했던 것이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 (자명적인 것)에서 미로(迷路)를 보았다. 자명적인 것, 상식적인 전제가 무지(無知)에로의 온상임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해부도(解剖刀)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자명적인 전제였다. 그러기에 그는 개념분석에 일생을 바쳤으며 그것으로써 실존과 유리된 개념이라는 유형을 추방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하여간 그의 이 한마디의 반문은 하루종일의 토론을 원점으로 돌려서 밤에는 조직신학(組織神學) 이전에 조직이란 무엇인지를 토론하지 않으면 안되게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나는 줄곧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신학에 관심을 가지며 그의 철학을 신학과 어떻게 관련시키는지 직접 묻고 싶은 생각으로 차 있었다. 그가 볼트만과 깊은 교우관계(交友關係)가 있다는 말은 들어 왔다. 1922년부터 말부르그 대학에서 일생을 보냈는데 거의 같은 기간에 같은 대학에 있던 볼트만과 그는 계속 사상적 교류를 해왔었다. 그는 단순한 신학적 관념만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신학을 추구했다. 그러므로 볼트만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자주했으며 함께 초대 루터연구, 《요한 복음》을 원전(原典)으로 연구한 과거가 있었다. 그러나 볼트만은 신학자며 하이데거는 신을 전제하지 않는 무신적 실존철학자라는 이름이 붙은 철학자로 일관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고 싶었던 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포착해서 손을 번쩍 들어 발언권을 얻었다. 호랑이 앞에서 하룻강아지가 뭘 작정을 한 셈이다. 「하이데거 교수에게 한마디 묻겠습니다. 신학이 철학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이 대화할 수 있는 접촉점입니까?」이 한 마디를 겨우 내뱉고는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拭었다. 그 질문이 유치해서 북새당하면 얼마나 창피한가 하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천천히 일어선다. 나를 향하더니, 〈Theologie ist für Philosophie belanglos Theologie ist für Philosophie von Bedeutung〉이라고 엄숙히 선언한 후 앉아 버린다. 나는 어안이 빙빙했다. 아무런 생각도 파악 그 뜻을 모르겠다. 번역하면 「신학은 철학에 무의미하다. 신학은 철학에 의미 있다」라는 뜻밖에 안된다. 나는 오히려 그 대답에 침통해졌다. 그것이 얼굴에 드러났었는지 곁에 있는 사람이 그 뜻을 밝혀 주었다. 그는 처음에 Theologie(신학)라고 할 때는 Theo(神)에 악센트를 주었고 다음번에 Theo-logie를 말할때 logie(論)과 악센트를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던 신(Theo)에 중심을 두는 경우에는 신학은 철학과 대화할 수 없으나, 論(logie)에 중심을 둘 때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 것



이다. 이로써 신의 문제는 철학이 왈가 왈부한 영역이 아니라 론(論)으로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게 악센트까지 구분해서 그 뜻을 헤아릴 만한 독어실력(獨語實力)의 여유가 어디 있었으랴.

#### (4) 함께 맥주를 들며, 춤볼!

그의 〈논(論)〉은 구체적으로 존재론이다. 신을 전제로 했거나 안했거나 간에 존재론이라는 데서는 같은 영역에 선 것이다.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에서는 틀다 같다. 단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하라고 하니〉라는 단서가 붙고 다른 하나는 그런 단서가 없을 따름이다. 따라서 전자는 어떻게 존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데 대해 후자는 그저 존재해야 한다고만 밝히는 데 그칠 따름이다.

이것은 그와 사석(私席)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저녁 간담 시간에 저만치 앉아 있는 나를 그가 손짓한다. 그의 곁으로 오라는 것이다. 나는 무척 호뭇하면서도 일련 당황했다. 그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고 묻고 한국 사람임을 알자 한국의 불교(佛敎)에 대해서 물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불교의 언어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일본(日本)의 선학자(禪學者)와의 교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불교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다. 그 대신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피상적인 몇 마더를 했다. 그의 낮의 질문을 상기하면서 자기 대답의 의미를 알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당신을 무신적 철학자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의 철학에서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무신이라는 전제도 갖는 것이 아닌 것이라고 하며 그런 규정은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했다. 그 밖에도 여러 말이 오고 갔으나 기억되지 않고 그가 맥주잔을 들이키면서 다정한 표정으로 〈춤볼(전장을 위해서!)〉하면 인상이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을 뿐이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찌기 거리로 내려가서 그의 책을 구했다. 그의 사인을 받을 용기를 낸 것이다. 그의 책 한 권을 사들고 토론에 참여한 나는 기회를 엿봤다. 나는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오래 망설였다. 그러나 잠깐 휴회(休會)의 틈을 타서 그 책을 들고 가서 사인해 달라고 했더니 이름만이 아니라 다른 말까지 덧붙여 써주었다.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니 내 뒤에 5,6명이 사인 받을 책을 들고 줄지어

서 있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인해 주었다. 그러는 동안 그 배열은 점점 늘어만 갔다. 사인을 받은 한 사람이 내게 와서 「당신 덕분에 사인받을 수 있었소」한다. 이유인즉 하이데거는 때때로 그런 것은 한 마디로 거절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우둔함이 호랑이를 잡은 셈이 되었다.

#### (5) 人間の自己喪失

그는 《근거의 본질에 관해서》의 서문에서, 그의 《존재와 시간》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에도 어떤 반응도 없다고 토로한다. 그것은 그가 유명해지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며 제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말하는 사유의 동등한 대화의 상대가 없다는 한탄이다.

그러한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를 우려려 보며 그에게 도취하는 자는 오히려 그를 슬프게 할 것이다. 그는 인류 역사를 존재의 망각사(忘却史)라고 보고 그것이 인간의 자기 상실이라고 봤다. 그렇다면 그를 흠모하는 동안 존재를 망각하면 그의 분노를 사게 될지 모른다.

그는 망각의 극단에서 존재를 자각했다. 그러므로 그의 원초적(原初的)인 빈곤상태에 돌아갈 것을 호소한다.

그러므로 그를 배워서 그의 사고를 내 무기로 삼는다 해도 존재망각자로 편찬을 받게 될는지 모른다. 그를 만난 자는 그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므로 하이데거를 만난 사람은 그를 잊어버려야 한다.

그가 남기는 것이 있다면 진지성(眞摯性)(Ernst)이다. 그의 인상은 진지했다. 그러나 그의 진지성은 나의 진지성을 자극할 뿐이다. 그러기에 그의 풍모 따위는 머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무엇인가 받았다. 그것은 무엇인지 몰라도 나를 엄숙하게 한다. 그것은 삶의 발견일까? 그는 참 삶(자유)은 기도(Andacht)요, 은총에 대한 감사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有神), 무신(無神)과 상관없이 어딘가 그 안의 나, 내 안의 그를 느낄 수 있는지 모른다.

<韓國隨筆文學大全集 10(1975년 10월 汎潮社 刊)에서 옮겨 실음.>